

<하느님의 윤리> 장재봉 신부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진리가 아닌 것을 택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느님께서 이르시는 진리를 향한 윤리보다 세상이 원하고 권하는 방법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악세사리처럼 여기고 세상에서 남이 갖지 않은 것을 하나 더 소유한 것쯤으로 생각할 때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과 전혀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톨릭은 하느님의 윤리기준을 제시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윤리기준을 살아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느님의 윤리는 결코 삶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며 결코 먹고살만해 지면

그 때 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막연한 일일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느님의 윤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윤리는 하느님께서 꼭 행하라고 이르신 일이며 하느님의 뜻을 살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이르신 윤리는 삶의 기초이고

인간성 회복의 바탕이기에 사람이 제자리를 찾는 일이고 제 모습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이 부패한 것은 인간의 도리보다 경제적인 가치를 숭배하는 까닭입니다.

나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만 살아서는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 술 더 떠서 하느님께서 이르신 윤리를 거추장스러워하고 자신의 앞날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부요해지는 일은 부패와 무질

서 속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국도 가난해서 망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거대제국 로마의 멸망원인만 살펴도 명명백백한 일이지요.

로마의 패망은 성적으로 타락하여 문란한 생활에서 비롯됩니다.

사치만을 추구하는 병든 마음 탓이었습니다.

쾌락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으로 마비된 이성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더 잔인한 스포츠를 탐닉하는 꼴도 국가의 무강만을 위해서 전쟁으로 나라의 젊은 층을 희생시키는 일도 권력이 백성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일도 원로원의 부패도 모두 하느님의 윤리를 잊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시시한 것들로 그 막강한 로마는 병들고

알고 마침내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이 모두 윤리와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돈이 윤리와 병행하지 않을 때, 사기가 판을 치고 안면을 물수한 사행산업으로 전락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일마저도 윤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 법의 의료계의 경제계의 사기꾼으로 기울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진리를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하느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 진리는 타협으로 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는 걸 배웁니다.

그는 “더욱 두려운 생각” (요한 19, 8)이 들어

“예수님을 풀어 줄 방도를” (19, 12)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번민했다는 사실은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마태 27, 24)라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보고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도 세상의 것으로 기울어져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이르시는 하느님의 윤리를

적당히 요령껏 눈치껏 선택하는 일은 모두 사탄

의 것이라는 걸 일깨움 받습니다.

하느님을 믿되 주님의 뜻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미신이며 무당종교이며 위선이며 허위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듣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빌라도처럼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리를 뒤로 미루고 은근슬쩍 세상을 선택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느님을 안타깝게 할 뿐입니다. 아멘

위령 성월 기도

ㄹㄹㄹ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ㄹ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ㄹ 주님께서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ㄹ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ㄹ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ㄹ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ㄹ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ㄹ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ㄹ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11월 15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55.00
교 무 금 : \$
감 사 금 : \$ 50.00 184(50)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금주\$220 (\$5280.00)
합 계 : \$ 805.00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랑미 없을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인격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생각하는 바, 그러니까 평판과는 다릅니다.

인격은 성취와 성공과도 다릅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 빌 하이벨스의 글에서

본 당 소 식

◎ 음악회 녹음 CD 배포 안내

이번 11월 음악회 공연 실황 녹음 C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가단원 30부, 안토니다니엘 성당 20부를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 대림절 판공성사 안내

오는 29일이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에, 우리는 세속의 한 해를 마무리 하고 교회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대림절을 맞아 진정한 자기성찰과 고해를 통해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대림성탄 판공성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13일(대림 3주일)-고원일 안드레아 신부님

12월 20일(대림 4주일)-조원행 안드레아 신부님

공히, 미사 30분 전과 미사 후에 있습니다.

◎ 12월 사목회의 안내

▶일시 : 11월 29일 주일 미사후

▶장소 : 교육관

◎ 울뜨레아 모임 안내

오늘 미사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교육관/소성당 사용시 반드시 본당 주차장을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초 고춧가루 및 열치 판매 안내

런던 성당 바자회에서 여분이 남아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요하신 교우는 오늘 친교 식사 중에 구입하세요

문의 한재희 성모 총무

◎ 본당 홈페이지 오픈

주소 : www.kwpaul.com

▷ 홈페이지에 대해 개선할 사항은 한택중 형제께 말씀해 주십시오. ☎519 279 4005 교환 1번

◎ 11월 안내 담당은 청소년부입니다.

▷ 12월 : 사목회의

◎ 교육관/사제관 관리 일정

▶워털루 4구역 11월

◎ 11월 구역모임 안내

▶브랜포드구역 : 27일 (금) 7시 안정흥형 제대

**** 교우주소록양식 정정/추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당신 나라가 이 세상 것이 아니라면, ‘세상의 개념’으로 그분을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은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고쳐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의 주인이신지요?

시간과 운명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은 어디로 흐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인이신 그분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운명도 어디로 향하는지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며 말려야 합니다. 교회 달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는 공적으로 이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분을 시간과 운명의 주인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누군가 막아 준다면 아무라도 그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부적을 지니고 곳을 하며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이러한 ‘방황’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답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주재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미래를 책임지고 계심을 잊고 있었다면, 오늘은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운명을 지켜 주고 계심을 느끼지 못했다면, 오늘은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라고 청해야 합니다.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2009-47호

2009. 11. 22.

연중 제 34 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해설 김근호

차주 해설 신계연

성 가

입 당 (75) 주 그리스도 우리 왕

봉 헌 (206) 성심의 사랑

성 체 (180) 주님의 작은 그릇

퇴 장 (73) 만민의 왕 그리스도

화 답 송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독 서

11월 22일 고영호 고기숙

11월 29일 김현태 김진선

봉 헌

11월 22일 노재현 노정은

11월 29일 고영호 고기숙

복 사

11월 22일 안아림 노승범

11월 29일 최예슬 강수현

친 교

11월 22일 성모회와 워털루 3구역 협조

11월 29일 성모회와 워털루 4구역 협조